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
정치

[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9호 \(2026년 10월 1주\)](#)

- 국정운영 평가, 정당지지도, 22대 국회 평가, 임신중지 약물 도입 찬반

[통일 필요하다는 국민 39% 불과... '현재대로가 좋다' 역대 최고\(종합\)](#)

연합뉴스_2026.9.28.

사회 일반

[작년 사망자 수 역대 2위...10~40대는 자살·50대 이상은 암](#)

연합뉴스_2026.9.22.

[7월 출생아 2만4천명, 7년 만에 최대...연간 누적 17만명 넘어](#)

연합뉴스_2026.9.23.

['그냥 쉼' 4050 작년 67만명, 청년까지 합치면 128만명](#)

동아일보_2026.10.1.

["초등교사 10명중 7명 우울증-PTSD 겪어"](#)

동아일보_2026.10.1.

[1인 가구 46.2% "속마음 나눌 상대 없다"...60대는 노후 준비 '취약'](#)

동아일보_2026.9.22.

[내 개인정보 활용, 어디까지 허용?... "공익 목적엔 찬반 '반반'"](#)

연합뉴스_2026.9.30.

[울추석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42% ↑ ...하루 평균 1천294건](#)

연합뉴스_2026.9.27.

[\[2026년 하반기 사회기관 역할수행평가\] 대다수 사회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, 1년 전 수준으로 하락](#)

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.9.22.

아동 · 청소년 · 청년

[단독 "면접서 백수로 보일까 무서워요"... 대학 졸업유예자 4년 새 45% 급증](#)

한국일보_2026.9.29.

[대학생 생활비 대출 2년새 33% 늘어 8천500억원...연체액도 31% ↑](#)

연합뉴스_2026.10.1.

[\[단독\] 고립 벗어나려 상담센터 찾았지만... 은둔 청년 절반, 결국 지원망 이탈](#)

국민일보_2026.9.29.

[감기약 40알 꿀꺽한 10대... 친구와 화상통화하며 먹기도](#)

국민일보_2026.9.29.

[청년·저소득층일수록 "한국 사회 불공정"...10여년간 인식 악화](#)

연합뉴스_2026.10.5.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
[10대 마약의딿], 연합뉴스

- ① [흡연보다 흔해졌다…"친구 1명이 10명 중독" _2026.9.14.](#)
- ② ["돈 없어? 10개 팔면 2개 줄게"…드라퍼 된 아이들 _2026.9.14.](#)
- ③ [치료할 곳도 없다…폭행 겪는 의료진은 '번아웃' _2026.9.21.](#)
- ④ ['수면시간' 전략한 예방교육…"공포교육으로 한계" _2026.9.21.](#)

경제 · 기업

- [고소득 가구 경상소득, 저소득 가구의 8.5배… 아득한 소득 격차](#)
국민일보_2026.10.1.
- [“그때 집 샀어야지” 친척 단골 잔소리…10년 집값 따져보니](#)
중앙일보_2026.9.26.

국제

- [폭자는게 더 위험?…사망률은 수면 6시간 이하보다 9시간 이상이 높아](#)
문화일보_2026.9.25.
- [러닝족 다 어디갔나…2030 건강 ‘빨간불’ 담배 늘고 운동 줄었다](#)
중앙일보_2026.9.30.
- [고기 더 먹고 운동 더 하는 70대 이상, 10년새 확 늘었다](#)
조선일보_2026.10.4.

기독교 · 종교

- ["교회 안 나가는 개신교 신자 증가…'자기주도적 신앙' 선호"](#)
연합뉴스_2026.9.28
- [“내 비밀 들어줄 어른 없어”… AI 친구 찾는 외로운 다음세대](#)
국민일보_2026.9.27.
- [美 개신교인 과반 “성경 잘 아는 거 같은데…혼자 읽으면 이해 어려워”](#)
국민일보_2026.9.25.
- [제111회 총회총대 설문조사, “교인 감소보다 무서운 건 신뢰 하락”](#)
기독신문_2026.9.23.
- [교세 감소폭 다시 커져… 합동 1년 새 12만명이나 감소](#)
기독교연합신문_2026.9.19.
- [“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”…커지는 ‘가나안 성도’](#)
경향신문_2026.9.28.